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징병제를 근본적으로 과세의 한 형태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 예컨대 스위스에서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젊은 남성들은 군복무 대신에 몇 년 동안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남북전쟁 이전에 징병제가 주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미국에서는 추가 세금이나 징병 대리인을 고용한다면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과 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군 입대를 거부당한 트랜스젠더를 배려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의 결실이다. 그러나, 만약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학살에 여성들이 동조하고 싶다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패전하는 국방부에 합류하고 싶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군에 입대할 수 있다. 군 일자리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것과 여성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공정성이 걱정된다면, 이 문제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하지 않는 것이다. 납세자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의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고 그 시설을 유용한 업무를 보는 조직에게 내주면 된다.

미국에서는 실제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징병제 안이 그저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투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예측이다. 그러나 징병제를 통해 사람들을 비전투요원으로 징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 군대의 극히 일부분만이 실제 전투에 참여한다. 대다수의 군인은 물류, 운송,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사무직에 종사한다. 군대에서 대부분의 사망도 사실 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전사는 극히 적게 발생한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가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많은 보수주의자가 여성을 군 복무에 끌어들이는 것이 야만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여성에게 전쟁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야만이다. 그러나 남성에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its-wrong-draft-women-its-also-wrong-draft-men>